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22위로 4년만에 상승

전세계 66개국 조사, 전년 비해 3개국 제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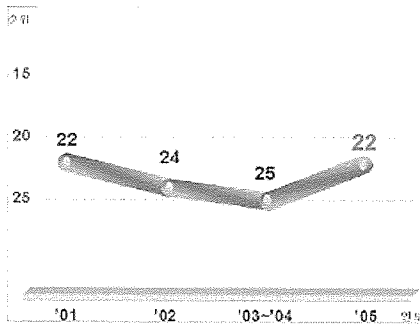
기업가 및 전문가 부문에서 성과 두드러져

지난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4년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가 및 전문가 부문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둔 반면 근로자와 정치가 및 행정관료 부문은 경쟁력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산업정책연구원(IPS)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46.82점으로 전세계 66개국 가운데 22위를 차지했다. 이는 2001년 22위, 2002년 24위, 2003~2004년 25위 등 지속적 하락세에서 4년만에 반등한 것이다.

한국 국가경쟁력 추이



특히 기업가 개개인의 역량과 전문 경영자의 경쟁력 강화에 힘입어 기업가와 전문가 부문이 각각 5계단, 3계단 상승하면서 순위 상승에 크게 기여했다. 시장수요조건과 인프라 등 지원산업, 경영여건 및 생산요소 조건 등 물적부문은 골고루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저임금으로 확보되는 양적 경쟁력을 상실한 데다 노동시장의 개방도, 근로자에 대한 동기 부여

등이 미흡한 근로자 부문은 전년에 비해 17계단이나 하락했다. 정치가 및 정치 시스템의 경쟁력 감소로 정치가 및 행정관료 부문도 2계단 하락했다.

전세계 66개국을 대상으로 8개 부문 275개 변수를 적용해 국가 순위를 매긴 이번 조사에서는 미국이 65.67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캐나다(64.09점), 네덜란드(63.51점) 등이 각각 2·3위에 올랐다. 아시아권 국가로는 홍콩(10위)이 선두였고 싱가포르(11위), 일본(19위) 등도 상위권에 랭크됐다. 중국은 24위로 우리나라보다 2계단 뒤졌지만 지난해 32위에서 평균 뛰어올랐다.

이번 연구의 책임자인 조동성 산업정책연구원 이사장은 "한국이 과거와 같은 저원가 전략으로 국가 산업 발전을 도모하면 중국 인도 등 개도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며, 이 경우 경쟁력 지수가 34.48로 낮아져 최악의 경우 57위까지 추락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2005년 ISP 국가경쟁력 종합순위

순위	국 가	Index
1	미국	65.67
2	캐나다	64.09
3	네덜란드	63.51
4	덴마크	61.71
5	벨기에	60.52
6	스웨덴	58.90
7	핀란드	58.30
8	영국	57.61
9	프랑스	57.29
10	홍콩	57.25
11	싱가포르	56.95
12	노르웨이	56.22
13	스위스	56.14
14	이스라엘	55.29
15	호주	54.94
16	뉴질랜드	54.00
17	독일	52.02
18	타이완	51.63
19	일본	51.18
20	오스트리아	50.98
21	이탈리아	47.65
22	한국	46.82
23	칠레	46.75
24	중국	46.66
25	멕시코	45.98
26	스페인	44.61
27	포르투갈	43.56
28	그리스	43.24
29	헝가리	43.11
30	태국	43.02
31	쿠웨이트	41.99
32	말레이시아	41.47
33	요르단	41.19